

빅데이터·AI 활용 농산물 가격 예측한다

(인공지능)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앞으로 국내 농산물의 수급정보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될 전망이다. 또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창업교육 과정도 운영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aT에 따르면 기존 수급정보종합시스템을 올해 3월부터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시범 가동에 들어간다.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은 빅데이터와 ICT 기반의 수급관리 시스템으로, 기존 7개 기관 28종의 데이터베이스(DB)에서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이 추가돼 총 10개 기관 54종 DB로 확대된다.

aT, 농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나서 네이버·유튜브·SNS 등 연계 홍보도 강화키로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단계별 창업교육 운영

여기에 기존 생산 등 1차 정보에서 분석·예측 정보까지 제공,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농산물 가격예측도 가능해진다. 해당 정보들도 웹사이트나 통계를 넘어 웹과 모바일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정보도 모바일 이용자를 위해 기존 텍스트 위주에서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네이버와 유튜브 등 포털서비스를 비롯,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과 연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aT는 유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유통 47개 과정(6600명)과 식품 31개(2200명) 과정 등 분

야별 전문교육을 펼친다.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서 단계별 창업교육과정을 열고 초창기 창업 절차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이후 자금조달과 경영, 온라인홍보 등 실천과정을 비롯한 사후관리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올 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국산 농산물 중심의 수급 안정체계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식품산업에서도 국산 식재료 사용을 늘려나간다. 식품과 외식산업을 농업과 연계해 식품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식업 창업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와 연계하여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구축하고 학교급식 공급망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기존 1개소에 불과했던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전국 5개소로 확대, 청년·대학생에게 실질적 외식창업 운영기회를 제공한다.

수출을 통한 해외 수요도 확충할 계획이다. 대중국 수출 회박 및 아세안 등 주력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장다변화 선도기업 100개사를 육성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와 함께 APTERR, FAC(식량원조협약)을 통해 올해 쌀 6만t 상당을 해외에 원조한다.

이병호 사장은 "aT 본연의 기능인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aT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축협 업적평가 전국 1위 달성

시상금·승합차 받아

광주축협(조합장 안명수)이 20일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17년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주축협은 예금·대출금 등 상호금융사업과 비이자성 수익사업인 보험·카드사업, 경제사업, 지도사업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또 유통혁신, 종합건설팀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활동, 고객만족경영을 통한 교

육연수원 승격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광주축협은 전국 1위 달성 수상으로 시상금과 함께 농업인 실익지원용 12인승 승합차를 부상으로 받았다.

안명수 조합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의 노력 덕분에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며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정도경영을 통해 전국 1위 수상조합에 걸맞은 최고의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왼쪽 다섯번째)과 국립나주병원 관계자들이 감정노동 직원들의 의료케어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118상담원 10명 중 9명 "폭언·욕설 등 언어폭력 당했다"

인터넷진흥원 '감정노동실태' 조사... 국립나주병원과 업무협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석환)은 20일 사이버 관련 대국민 고충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118상담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폭언과 욕설, 인격모욕 등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리한 요구'(80%)가 가장 많았고, '인격 모욕'(68%), '폭언과 욕설'(56%), '성희롱'(12%)이 뒤를 이었다.

최근 3주간 상담원 1인당 무리한 요구는 평균 7.12회, 인격 모욕은 3.76회, 폭언과 욕설은 1.32회, 성희롱은 0.24회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묻

는 질문에는 상담원 대부분이 '잡는다'(84%)고 답했고, 이로 인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답한 상담원도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소화가 잘 안 된다'(52%), '우울하다'(48%), '목이 붓고 아프다'(40%)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KISA는 최근 118상담센터 등 기관 내 감정노동 직원의 스트레스·불안·우울증 해소를 위해 국립나주병원과 정신건강증진 의료케어서비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ISA 감정노동 직원은 118사이버민원센터와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등 총 70명이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개인심리상

담 ▲전문장비를 이용한 심리안정 치료 ▲정신건강 강좌와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신체조절 능력과 스트레스 저항도 및 피로도 등 전반적인 스트레스 진단결과, 관심군으로 나타난 상담원에게는 직무 스트레스를 줄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환 원장은 "그간 사이버 국민고충 해결 담당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고충 민원 매뉴얼 제작, 심리상담 등 내부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의료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청년인턴·경력직 직원

NCS 블라인드 채용

사학연금공단, 다음달 2일까지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20일 채용형 청년인턴과 경력직 직원 모집을 위해 2018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용분야는 채용형 고졸인턴 경영·행정·사무 1개 부문, 채용형 일반인턴 경영·행정·사무, 법률, 회계, 기계, IT(전산) 등 5개 부문이다.

또 경력직 회계, 연금제도 2개 부문으로 포함돼 총 17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지역인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우대된다.

이번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의 평가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 순이며, 입사 지원기간은 26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다. 온라인(<https://tp.recruiter.co.kr>) 접수만 가능하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직무역량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자격 및 모집요강 등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t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백화점 전남대서 내일 채용설명회 연다

롯데백화점 채용설명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1층 취업강의실에서 열린다.

20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롯데백화점 입사에 관심이 있는 광주지역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롯데백화점 인사팀 채용담당 송지홍 책임의 롯데백화점의 인재상, 입사 TIP, 채용 일정, 백화점 복지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 뒤 입사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갖는다.

또 롯데백화점은 올 상반기 채용부터 디지털 채용 설명회 '온라인 직감(職感) Talk' 영상을 제작,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채용은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서류전형을 시작으로, 4월 롯데그룹 인성검사인 L-TAB테스트를 거쳐 5월말 면접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DN, 청렴 문화 확산 읍부즈만 정기회의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20일 본사 17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청렴 읍부즈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오석 상임감사와 청렴 읍부즈만 5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주요 안전인 부패방지 사책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청렴 읍부즈만은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되며,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와 사업관리

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편, 한전KDN은 다산체협 청렴교육을 팀장급이상 전 보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조급간부 전직원에 대해 확대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천만홀릭 커밍순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경리 이원석 신동엽 김기방 은지원

CHANNEL